

정오표

문학 FOCUS

학습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2025.09.10

p.190~191

Subject 3: 2106 (가)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23번

정오사항

1. 작품 해설이 2차 검수본이 아닌 초안으로 들어간 것을 수정했습니다.
2. 문제 선지에 대한 해설이 누락된 것을 추가했습니다.

2025.09.20

p.74

Subject 4: 2509 (나) 문태준, 「살얼음 아래 같은 데 2 - 생가(生家)」 25번

정오사항

‘어미들’은 화자를 보고 (‘어린것들’을 데리고) ‘깊은 속’으로 도망갔습니다.
→ 삭제

Subject 3: 2106 (가)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23번

학습목표: <보기>가 없는 상황에서 상황에 맞는 기준을 잡고 화자의 지향점 파악하기

높으디높은 산마루
낮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A]

화자는 어두운 밤에 높은 산마루에서 낮은 고목에 기대어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바라고 구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기대고 있는 모습을 못에 박힌 모습에 빗댄다.

화자: 표면적 화자

정서: 슬픔

배경: 높으디높은 산마루(공간), 밤(시간) = 어두움

상황: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기다리며 울고 있음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밝은 아침이 되자 화자 자신의 핏줄에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옵니다. 이때, '시들은'에서 화자의 생명력이 떨어진 상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핏줄을 타고 가슴까지 종소리가 울려 퍼져 들어옵니다. 생명력이 다시 회복된 것일까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긴 밤을 울며 보내던 때는 부정적 상황이었고 지금은 긍정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명암 대비를 통해 긍정과 부정을 나눠줍니다.

배경: 아침(시간) = 밝음

상황: 부정(어두움) → 긍정(밝음)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펼던 샛별아 숨으라.

이제는 눈을 감아도 꽃다운 하늘이 보일 정도로 좋습니다. '샛별'에게 '영혼의 촛불'로 '숨으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제는 밤이 아니기에 더 이상 샛별이라는 빛에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못 해석해도 상관 없습니다.)

대상: 영혼의 촛불(밝음) = 긍정, 어둠 = 부정, 샛별(밝음)

상황: 눈을 감아도 꽃다운 하늘이 보이는 긍정적 상황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햇살을 받으며 이마가 환히 트입니다.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메마른 입술에서 생명력이 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오니 생기가 돌았고 생명력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화자는 생기가 돈 입술로 잊었던 피리를 더듬는다고 합니다. 과거(생명력O)에 피리를 불었으나 현재로부터 가까운 과거(생명력X)에는 피리를 불지 못했나 봅니다. 지금(생명력O) 다시 피리를 불 수 있습니다. 음... 피리는 생명력과 연관이 있을까요?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판단합니다.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새들은 즐겁게 노래를 부릅니다. 일단 노래와 연관된 대상은 긍정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슴과 토끼는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고 합니다. '어둠 속에 나래 펼던 샛별아 숨으라.'처럼 명령형 어조로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화자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서로 싸릿순을 사양하며 양보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나 봅니다.)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B]

수미상관에 번주가 들어갔습니다. 달라진 부분에 주목합니다. 화자는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홀로 서서 노래함

니다. 1연에서는 ‘못 박힌 듯 기대어’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옷자락을 날리며 노래합니다. 정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로 대비됩니다. 그리고 1연에서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가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로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A]는 부정적인 상황이 [B]는 긍정적인 상황이 두드러집니다.

3.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④

- ① [A]의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올게 한 문제는 [B]의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A]에서 화자를 올게 한 문제는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이와 달리 [B]의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은 화자에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두 대상은 다른 대상입니다. 적절합니다.

- ② [A]의 ‘못 박힌 듯’ 기댄 자세는 과거의 고통을, [B]의 ‘옷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A]에서 ‘못 박힌 듯’이 기대서 울고 있는 화자는 정적이고 고통받는 상황을 드러내지만, [B]의 ‘옷자락을 날리며’ 서서 노래하는 화자는 동적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적절합니다.

- ③ [A]의 ‘긴 밤’에 담긴 부정적 상황은 ‘이 아침’ 이후 [B]의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A]의 ‘긴 밤’은 어두운 이미지를 드러내고, ‘이 아침’은 밝은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이로써 명암 대비를 통해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B]의 ‘맑은 바람’ 속에서 노래를 부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합니다.

- ④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래 떨던 샛별’과 ‘향기로운 싸릿순’은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앞 선지들을 판단하며 이 작품은 [A]의 부정적인 상황(과거), ‘이 아침’을 통해 드러낸 긍정적인 상황(현재), 그 긍정적인 상황(현재)에서 다른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다림을 드러내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간적 기준을 잡고 범주를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지향점’은 화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지향점으로 기능하려면 화자가 아직 도달하지는 않았으나 언젠가 도달하고자 해야 합니다.

‘나래 떨던 샛별’과 ‘향기로운 싸릿순’은 [A] 시점의 화자가 지향하던 것들입니다.

[A]와 [B] 사이(현재)의 ‘아침’이 온 화자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에 더 이상 지향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B] 시점(현재)의 화자에게는 긍정적인 미래인 ‘무언가’가 지향점입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⑤ [A]의 ‘간구’는 ‘시들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을,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시들은 핏줄’을 통해 [A]의 부정적인 상황(과거)에서 생명력이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시점의 화자는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서 생명력을 회복(현재)하고 ‘노래’를 부르며 미래의 ‘무언가’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적절합니다.

**Subject 4: 2509 (나) 문태준, 「살얼음 아래
같은 데 2 - 생가(生家)」 25번**

학습목표: 현대 시에서 같은 범주 내 대상들을
세밀하게 구분하기

어미들은
물속 쌓인 돌과 돌 그 틈새로
그걸 깊은 데라고
그걸 가장 깊은 속이라고 때로 들어가
나를 못 알아보고
무슨 급한 궁리를 하느라
그 비좁은 구석방에 꽤꼭히 서서

‘어미들’은 화자를 보고 ‘깊은 속’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화자는 그런 어미들을 보고 ‘나를 못
알아보고’라고 합니다. 엄마에 비춰본 것일까요?
그렇다면 ‘어린것들’은 화자 자신이나 다른 식구들에
비춰본 것입니다.

화자는 물고기들을 볼 때, 어린 물고기들과 어미
물고기들로 구분 지어 보고 있습니다.

대상2: 어미 물고기들